

표준치료가 불가능한 급성약물중독환자의 혈액관류효과

해남종합병원 내과¹, 가정의학과², 응급실³, 인공신장실⁴

양태영¹ · 김경남¹ · 박정훈² · 박근성² · 문기엽² · 강유성²
임채민² · 이호준² · 임희수² · 박영태³ · 강지영³ · 박선미⁴ · 황기연⁴

Efficacy of Hemoperfusion in Acute Drug Intoxication that Conservative Treatment was Impossible

Yang TY¹, Kim KN¹, Park JH², Park KS², Moon KY², Kang US², Lim CM²
Lee HJ², Lim HS², Park YT³, Kang JY³, Park SM⁴, Hoang KY⁴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¹, Family Medicine², ER³, AKU⁴, Heanam General Hospital

목적 : 약물중독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지요법의 발달에 따라 10%정도의 환자만이 중환자실 집중치료를 요하고 5% 미만의 환자만 혈액관류 (HP) 등 체외배설 치료의 대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혈액관류는 지연된 독성증상 (delayed toxicity)을 나타내는 paraquat 중독이나 독성대사물 (toxic metabolite)을 생성하는 methanol, ethylene glycol에 심하게 중독된 경우에 주로 시행하고 있다. 저자 등은 이들 약물이 아니더라도 임상적으로 심한 중독이나 신중한 내과적 치료에도 점진적인 임상적 황폐를 보일 때 혈액관류를 시행하여 그 효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방법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약물중독으로 202명이 내원하였고, 임상적으로 심한 중독이나 신중한 내과적 치료에도 점진적인 임상적 황폐를 보인 환자는 38명이었다. HP는 Activated charcoal이 들어있는 cartridge를 이용하여 12시간마다 3시간씩 시행하였고 환자에 따라서 혈액투석을 추가한 경우도 있었다. 응급 혈액관류를 시행한 환자 (25명)와 보호자의 거절 등으로 시행하지 못한 환자(13명)의 생존율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HP시행한 25명의 환자 중 3명이 생존하였고 (12%), HP시행하지 않은 환자는 모두 사망하였다. 사망한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HP시행한 환자 86.21 ± 28.02 시간, HP시행하지 않은 환자 12.34 ± 4.29 시간으로 HP를 시행한 환자에서 의미있게 생존기간이 길었다 ($p < 0.005$).

결론 : 현재 보편적으로 혈액관류를 시행하는 paraquat나 methanol, ethylene glycol 등의 약물중독 뿐 아니라 임상적으로 심한 중독이나 신중한 내과적 치료에도 점진적인 임상적 황폐를 보일 때, 어떤 약물 중독이든 초기부터 적극적인 혈액투석과 혈액관류 등을 시행한다면 환자치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